■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27-556.
http://doi.org/10.17948/kcs.2023..99.527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 **

송인성(宋仁成)***

목 차

1. 서론
2.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
3.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특징
4.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 비교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를 조사하고, 호출어가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계세요'류, '실례합니다', '이리 오너라'로 나타났다. 호출어 중에서 '야', '이보-'류,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야'와 '이보-'류는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는데, '야'는 화·청자가 친하고 힘의 위계가 동등한 관계에게 사용되는 반면 '이보-'류는 '이봐', '이봐요'의 형태로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고 힘의 위계가 다양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보-'류는 요청의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1980년대 이후 쓰임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잠깐(만요)'는 화자가 상대의 행동이나 말을 제지하고 자신의 발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기요'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여 주로 낯선 상대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어이'는 화·청자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청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4756).
** 이 연구는 2023년 한말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저자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상명대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보다 화자의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는 화자가 방문 호출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계세요’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외부에서 안에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된다. 반면에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내부에서 상대를 직접 보고 부를 때 사용된다. ‘이리 오너라’는 예전에 남의 대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인데 현대국어 초까지 그 쓰임이 나타난다.

주제어: 호출어, 야, 여보-류, 이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계세요, 실례합니다, 이리 오너라.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현대국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를 조사하고, 호출어가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호출어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호출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호출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야’, ‘이봐요’, ‘저기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은 문법적, 화용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현대국어 내에서 사용 양상의 변화가 관찰된다. 20세기 초에 주로 사용하였던 호출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소멸하거나 변화하기도 하고,[1] 20세기 말에 호출 기능을 하는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2]

이와 같은 이유로 호출어는 호칭어, 지칭어와 함께 국어 부름말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어 부름말 연구는 주로 호칭어와 지칭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어에서 호칭어와 지칭어가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호칭어와

1)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 56,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539-561면.

2) 20세기 말에 등장하는 호출어로 ‘저기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지칭어의 유형을 구분하고 사용 양상을 밝히는 것이 국어 부름말 연구에서 주된 과제였다. 반면에 호출어는 호칭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많고 호출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호출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3]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 부름말의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를 대상으로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고, 호출 표현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화・청자의 관계, 친밀도, 힘의 위계, 담화 상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4]

지금까지 국어 부름말 연구는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2.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는 호칭어 및 지칭어의 개념과 유형을 설정하면서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호출어를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거나,[5] 이와 달리 호출어를 호칭어와 구별되는 다른 범주의 것으로 분석

---

3) 호출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남 방언 부름말 '어이', '바라', '야야', '아요', '보소'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강우원, '여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 송인성, '이보-'류의 발달과 실현 양상을 분석한 송인성, 호출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특성을 밝힌 송수영・김양진 등이 있다. 강우원, 「경남 방언의 부름말 실현 양상과 문화적 특성」, 『언어과학』 15-2, 한국언어과학회, 2008, 1-19면; 송인성, 앞의 글, 2016; 송인성, 앞의 글, 2020; 송수영・김양진, 「한국어에서의 호출어 개념 연구」, 『국어학』 104, 국어학회, 2022, 87-117면 등.

4) 강우원에서는 부름말의 실현 조건으로 말할이와 들을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강우원, 앞의 글, 4면.

5) 박정운, 「한국어 호칭 체계」,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507-527면; 이선화,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전혜영,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연구와 교육』 1,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121-135면; 이윤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87-306면; 강소산・전은주,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

하였다.[6] 또한 부름말, 호격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호칭어, 호출어를 연구자가 설정한 체계 안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7]

먼저, 호출어를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호출어가 낯선 사람에게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는 말로 파악하였다. 박정운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시)게' 등의 말을 기타 호칭어로 구분하고, 이 말들은 다른 호칭어와 달리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으로 돌리는 데 주된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선화에서는 호출어를 간접 호칭어로 보고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등을 주의 끌기형, '저기요', '여기요'를 처소 지칭형 호칭어라고 하였다. 전혜영에서는 '여보세요', '여보' 등을 감탄사형 호칭어라고 하며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와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어로 제시하였다. 이윤진에서는 호출어를 낯선 관계 호칭어라고 하면서, 대화자 간에 마땅한 호칭이 없는 경우나 호칭은 있지만 아직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았다. 강소산・전은주에서는 호출어를 청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주의 환기형 호칭어라고 하였다. 조용준에서는 호출어를 호칭 표현의 한 종류로 보는 입장이지만, 호칭 표현 자체가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 환기형 호칭 표현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8]

호출어와 호칭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파악한 연구로, Fasold에서 호칭어는 이미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고 난 뒤에 사용하는 말이고, 호출어는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왕한석 외에서도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을 호칭어, 청자인 상대방의 주목을 끌기 위해

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363-389면; 조용준, 「한국어 호칭 표현의 범위와 그 특성」, 『한말연구』 50, 한말연구학회, 2018, 169-201면 등.

6)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황적륜 외 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왕한석 외,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2005; 손춘섭,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2010, 95-129면 등.

7)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2017, 227-254면; 송수영・김양진, 앞의 글 등.

8) 박정운, 앞의 글, 520면; 이선화, 앞의 글, 19-20면; 전혜영, 앞의 글, 126면; 이윤진, 앞의 글, 294면; 강소산・전은주, 앞의 글, 369-370면; 조용준, 앞의 글, 181면.

사용하는 말을 호출어라고 하였다. 호칭어는 이미 상대방의 주목을 끈 상태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고 하며 이 둘을 구분하였다. 손춘섭에서는 '여보세요, 여기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등과 같은 말은 화자가 어떤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를 직접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다르고 이를 호칭어의 한 가지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9]

부름말 안에서 호칭어와 호출어를 다룬 황병순에서는 부름말의 유형을 8개로 제시하면서 가장 상위의 범주로 지칭어형 부름말과 비지칭어형(지칭어 생략형) 부름말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비지칭어형 부름말이 호출어로 볼 수 있는데 '이봐', '여보게', '여보세요' 등은 강한 의지가 있는 요청형 부름말과 '어이, 여기요, 저기요' 등은 강한 의지가 없는 주의 끌기형 부름말로 구분하였다. 송수영・김양진에서는 호칭어와 호출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호격어(넓은 의미의 호칭어)로 설정하고, 호출어와 호칭어의 차이를 문두 위치, 어조 및 휴지의 길이, 반복 가능성, 소형문 구성의 실현 차이로 관찰하였다.[10]

앞선 연구에서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호출어와 호칭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호출어와 호칭어는 모두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호출어가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로 보았지만, 호칭어와 호출어는 모두 낯선 사람과 아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고 호출어뿐만 아니라 호칭어에서도 주의 환기 기능이 있다.[11] (A)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 보는 낯선 관계에서 '선생님', '손님', '학생'의 호칭 표현이 사용된 사례이다.

(A) ㄱ. 순봉: (경찰서) 저 우리 애가 뭘 모르고 이런 거 같은데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4_TV드라마, 가족〉
ㄴ. 웨이터: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2011_TV드라마, 보스〉

9) Fasold, 앞의 글, 4면; 왕한석 외, 앞의 글 18면; 손춘섭, 앞의 글, 100면.
10) 황병순, 앞의 글, 242-246면; 송수영・김양진, 앞의 글.
11) 김태엽, 「국어 부름말의 문법」,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19면; 조용준, 앞의 글, 181면.

ㄷ. 남성: **학생**. 이리 나와 봐요. 〈1990_만화, 영심〉

이 연구에서는 호칭어와 호출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출어는 화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고 호칭어는 주의를 끌고 난 뒤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출어와 호칭어는 모두 상대를 부르는 말이고 주의 환기 기능이 있지만, 호출어는 호칭어보다 주의 환기 기능이 더 주된 기능으로 실현되는 말이다. (B)와 같이 호출어는 호칭어와 함께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 호출어는 호칭어 앞에 사용되어 청자를 주목하게 하는 기능이 호칭어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

(B) ㄱ. **야 서울아**. 괜찮아? 〈2014_TV드라마, 가족〉
ㄴ. **이봐 색시**. 일어나. 이런 제길. 일어나래도. 〈1961_영화, 서울〉
ㄷ. **여보 주인장**. 이제 이거 배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믄 좋지? 〈1968_라디오드라마, 향토〉
ㄹ. **어이 꼬마야**. 공 좀 던져줄래? 〈1998_만화, 하니2〉

둘째, 호출어와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라는 두 개인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말이다.[13] 예를 들어, 기혼 40대 남성 직업이 교사인 김철수에게 친구들은 '철수야', 동료 교사들은 '김 선생(님)', 자식은 '아빠'라는 호칭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IT회사 과장인 김철수의 아내 이영희에게는 이러한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희야', '이 과장(님)', '엄마' 등의 호칭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호칭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반면에 호출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호칭어보다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된다. 김철수의 친구들은

12) 호출어를 호칭어 뒤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호출어의 주의 환기 기능이 잘 드러난다. '야 서울아 **야!**'의 사례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청자가 화자의 부름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화자는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한두 번 더 크고 긴 소리로 호칭어 뒤에 호출어를 실현하기도 한다.
13) 구현정,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 의미학』 51, 한국어의미학회, 2016, 87면.

김철수에게 '야'라는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김철수의 아내 이영희의 친구들도 이영희에게 '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둘에게 처음 본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도 '저기요'라는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호출어가 특정 대상을 직접 부르는 말 앞에서 사용되어 주의 환기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과 화·청자의 관계가 호칭어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호출어와 호칭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을 토대로 자료에서 호출어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3.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특징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자료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현대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출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고려대 구어 말뭉치 20세기 전·후기 자료와 21세기 TV드라마 말뭉치이다. 고려대 구어 말뭉치 전기 자료는 1930년대~1945년, 후기 자료는 1946년~1999년의 음성 및 영상 자료와 이를 전사한 자료이다. TV드라마 말뭉치는 2000년~2010년대 방영한 드라마 9편의 영상과 전사 자료이다.[14] 이 자료들은 당시 시대와 남녀노소의 일상의 구어가 잘 드러나서 현대국어 초부터 오늘날까지 구어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의 크기는 전체 58만 3천여 어절이다. 20세기 고려대 구어 말뭉치는 31만 5천여 어절(전기: 6만 5천, 후기: 25만)이고, 21세기 TV 드라마 말뭉치는 26만 8천여 어절이다. 작품의 제목, 제작 연도 등의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여 연도별로 호출어가 실현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호출어는 호출하는 대상과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에

14) 말뭉치의 전사 자료는 대본이 아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화를 직접 전사한 것이다.

따른 호출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호출 상대는 호출하는 대상이 화자가 아는 사람인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지 불특정한 사람인지를 관찰하였다. 화·청자의 친밀도는 Eggins의 사용역(register)을 참고하여 접촉 빈도, 정서적 몰입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15]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접촉 빈도와 정서적 몰입도가 높은 관계를 친한 관계로 파악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나 직원과 고객 등 접촉 빈도와 정서적 몰입도가 낮은 관계를 친하지 않은 관계로 보았다. 화·청자의 힘의 위계는 화·청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높임법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부모-자식과 같이 연령이 상대보다 높거나 직장 상사-부하 직원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상대보다 높은 경우 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힘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화자는 요청, 제안, 질문, 걱정, 칭찬 등의 특정 담화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화자가 호출어를 사용하여 발화를 진행하는 것은 담화 전략과 관련하여 화자가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발화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C)와 같이 호출어가 사용되는 담화 상황을 파악하였다.

(C) ㄱ. **[요청] 여보** 좀 기다려줘요. 〈1936_영화, 미몽〉
ㄴ. **[제안] 여보게** 한잔 먹고 노세. 〈1939_영화, 어화〉
ㄷ. **[질문] 야** 영길이가 누구냐? 〈1961_영화, 서울〉
ㄹ. **[걱정] 야** 조심해. 〈1988_영화, 칠수〉
ㅁ. **[칭찬] 야** 너 정말 대단하다. 〈1992_영화, 아래〉
ㅂ. **[진술] 잠깐만** 우리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 〈1972_만화, 이상〉
ㅅ. **[명령] 어이** 열쇠 딴 것 좀 줘봐. 〈1970_TV드라마, 반장1〉
ㅇ. **[종업원 호출] 여보** 맥주 하나 더 주. 〈1958_영화, 돈〉
ㅈ. **[방문 호출] 계세요**? 저- 주문하신 강력 진공청소기 가져왔습니다요. 〈1987_만화, 둘리〉
ㅊ. **[문제제기] 이봐** 말이 너무 심하잖아! 〈2006_TV드라마, 멋진〉
ㅋ. **[질책] 이봐** 봉수. 도박이란 그렇게 잃건 따건 화내는 게 아니야. 〈1958_영화, 돈〉

15) Eggin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ontinuum, 2004, pp.85-112.

ㅌ. **[위협] 이봐** 그만한 일을 했을 땐 각오를 했겠지? 〈1964_영화, 맨발〉

〈표 1〉은 호출어의 종류와 빈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현대국어 호출어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가 전체 1,232회 관찰되었다.

〈표 1〉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빈도

순위	호출어의 종류	빈도(회)
1	야	510
2	이보-류	263
3	여보-류	182
4	잠깐(만요)	113
5	저기요	70
6	어이	56
7	실례합니다	20
8	계세요류	13
9	이리 오너라	5
총합		1,232

1) 야

〈표 2〉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야'의 출현 빈도이다. 현대국어에서 '야'는 화자가 아는 사람을 부르거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야'는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야'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2	8	3	33	45	86	91	92	93	453
낯선 사람	0	1	1	8	13	11	8	10	5	57
총합	2	9	4	41	58	97	99	102	98	510

'야'가 실현될 때 화·청자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친밀도는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에서 435회,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75회로 나타났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관계에서 142회, 동등한 힘을 지닌 관계에서 368회 실현되었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관계

에서는 '야'가 실현되지 않았다.

〈표 3〉에서와 같이, '야'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친구 관계에서와 같이 화·청자가 친밀도가 높고 동등한 힘을 지닌 사이에서 호출어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가족 및 친척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부르거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학교 및 고향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도 '야'가 사용된다. 이 경우 대체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고,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다.

〈표 3〉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회)

관계	친구	가족	직장 상사-부하	연인	선배-후배	친척	선생-제자	이웃	낯선	총합
빈도	297	61	33	22	20	7	7	4	59	510

(D ㄱ)은 입대하는 친구를 위한 술자리에서 친구 간에 서로를 부를 때, (D ㄴ)은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야'가 실현된 사례이다. 또한 (D ㄷ)처럼 직장에서 상사가 나이가 어린 부하 직원을 부르거나, (D ㄹ)처럼 학교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도 '야'를 사용한다.

(D) ㄱ. 친구1: **야** 오늘 수진이의 입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건배하자.
친구2: 그래 좋아.
친구3: 잘 갔다 와라.
친구2: **야** 수진아 근데 너 애인은 있냐?
친구3: 그럼 있구 말구. 간호학과 4학년이야. 〈1987_TV드라마, 사랑〉
ㄴ. 아버지: **야** 정희야 자느냐? 〈1936_영화, 미몽〉
ㄷ. 사장: **야**.
사장: 맥주 좀 사와. 안주도 좀 사 오고.
직원: 네. 〈1972_영화, 영자〉
ㄹ. 상원: 저번에 형이 얘기한 거 학원 강사 말이야. 내가 큰맘 먹고 생각해봤는데.
선배: **야** 너 시인협회에서도 제명당했대매? 그런 메리트도 없고. 지금은 딱히 자리도 없는데 어쩌냐? 〈2007_TV드라마, 강남〉

담화 상황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는 〈표 4〉와 같다. '야'는 여러 담화 상황

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나 질책, 명령 등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실현된다.

〈표 4〉 담화 상황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문제 제기	질책	명령	진술	질문	제안	요청	걱정	위협	칭찬	총합
출현 빈도	182	77	61	55	52	35	20	17	11	11	510

2) 이보-류

'이보-'류는 '이(를) 보-' 구성에서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축약형 '이보시오', '이보', '이보게', '이봐', '이봐요', '이보세요'와 변화형 '이것/거 보시오', '이것/거 보오', '이것/거 봐', '이것/거 봐요', '이것/거 보세요'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이봐'(111회), '이봐요'(84회)가 주로 사용되었다.[16]

〈표 5〉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이보-'류는 화자가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낯선 사람을 부를 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실현되었다. 호출 상대가 불특정인 사람은 화자가 다른 사람의 집,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그 안에 있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부를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호출어 '이보-류'는 현대국어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표 5〉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3	4	8	33	25	24	17	18	32	164
낯선 사람	1	4	5	6	17	8	15	27	11	94
불특정 사람	0	0	1	0	3	0	0	0	1	5
총합	4	8	14	39	45	32	32	45	44	263

'이보-'류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101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157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92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56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0회 나타난다.[17]

16) '이보-'류의 다양한 형태의 실현 양상은 송인성을 참고. 송인성, 앞의 글, 2020.
17) 화자가 불특정 상대를 호출하는 상황은 화자가 상대를 직접 보고 부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표 6〉과 같이, '이보-'류는 화·청자가 가족, 친척, 직장, 이웃 등 여러 사이에서 두루 호출어로 사용된다.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실현되는데,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쓰임이 더 많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힘의 위계를 지닌 경우와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힘의 위계를 지닌 경우에 사용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경우도 드물게 호출어로 '이보-'류가 나타난다.

〈표 6〉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관계	이웃	가족·친척	직장상사-부하	연인	친구	직장동료	선생-제자	낯선	불특정	총합
빈도	40	38	35	23	15	12	1	94	5	263

(E ㄱ)은 친구 사이에서 화자가 청자를 부를 때, (E ㄴ)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이봐'를 사용하였다. (E ㄷ)은 화자와 청자가 낯선 관계에서 '이봐요'가 실현된 사례이다.

(E) ㄱ. 다이아나: **이봐** 앤. 나 비극이야.
앤: 뭐?
다이아나: 결국 나 카이트 파이하고 나란히 앉게 됐지 뭐니. 카이트 앤 시종 석필로 끼익 끼익 소릴 내고 있잖아. 〈1979_만화, 빨강〉
ㄴ. 조형사: **이봐** 자넨 경찰이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아나?
강형사: 당연히 슈퍼맨이 되야죠. 범법자를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993_영화, 투캅〉
ㄷ. 경비: **이봐요**. 여기 세우시믄 안 돼요. 전용 주차장이라 써 있잖아.
혜원: 아 죄송합니다. 저쪽으루 댈게요. 〈2014_TV드라마, 밀회〉

〈표 7〉은 담화 상황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이보-'류는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데, 그중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쓰임이 고빈도로 나타난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친밀도, 힘의 위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 상대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친밀도와 힘의 위계는 계량적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동일)

〈표 7〉 담화 상황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문제 제기	진술	요청	질책	질문	명령	제안	걱정	종업원 호출	위협	총합
출현 빈도	147	25	24	17	17	11	10	5	4	3	263

3) 여보-류

'여보-'류는 '여기(를) 보-' 구성에서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여기 봐요', '여보십시오', '여보시오', '여보', '여보게', '여봐', '여봐요', '여보세요'의 형태로 나타난다.[18] 이 형태 중에서 '여보'(55회), '여보게'(54회), '여보세요'(48회)가 주로 사용되었다.

〈표 8〉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여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여보-'류는 화자가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여보-'류는 대체로 1970년대까지 사용이 유지되다가 현재로 올수록 쓰임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8〉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51	5	20	18	7	0	0	0	0	101
낯선 사람	20	1	16	18	9	4	0	1	2	71
불특정 사람	0	2	5	2	0	0	1	0	0	10
총합	71	8	41	38	16	4	1	1	2	182

'여보-'류의 화·청자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여보-'류는 화·청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89회,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83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43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08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21회로 나타난다.

〈표 9〉와 같이 '여보-'류는 친구, 연인, 이웃, 직장 상사-부하 직원 등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보-'류는 화·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호출어로 사용된다. 화·청자 간의 힘의 위계도 화자가

18) '여보-'류의 다양한 형태의 실현 양상은 송인성을 참고. 송인성, 앞의 글, 2016.

높은 경우,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화자가 낮은 경우 모두 실현되는데, 이 가운데 화·청자가 동등한 힘의 위계를 지닐 때 가장 고빈도로 나타난다.

〈표 9〉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관계	친구	연인	이웃	직장 상사-부하	가족·친척	낯선	불특정	총합
빈도	42	28	21	8	3	70	10	182

(Fㄱ)은 연인 관계에서 '여보', '여보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남성은 '여보'를 사용하였고 여성은 '여보세요'를 사용하였다. (Fㄴ)은 친구 사이에서 '여보게'가 사용된 사례이다. '여보게'는 친구 사이와 같이 화·청자가 친하고 힘의 위계가 동등하거나, 가족 및 직장에서 화자가 손윗사람으로 힘의 위계가 큰 경우에 사용된다. (Fㄷ)은 화·청자가 낯선 관계에서 '여보시오'가 사용된 사례이고, (Fㄹ)은 화자가 낯선 장소를 방문하여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여보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F) ㄱ. 한호: **여보** 영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오.
한호: 당신에게 이때껏 속여 왔던 이놈이 큰 죄인이오.
영애: **여보세요** 참말로 이 영애를 사랑해 주셨다면 인제 와서 그런 말씀은 말아 주세요. 〈1930_유성기연극〉
ㄴ. 석춘: **여보게** 억조. 미안하네만 나 돈 이만 환만 좀 돌려주게.
억조: 이만 환이면 한 달에 이자가 삼천 환일세. 〈1958_영화, 돈〉
ㄷ. 남성: **여보쇼** 잠깐 기대리십시오.
남성: 당신 이갑이라는 사람이오?
이갑: 네 그렇소이다. 〈1963_라디오드라마, 여명〉
ㄹ. 남성1: **여보세요**.
학규: 누구십니까?
남성1: 시경 풍기단속반입니다. 가게 문이 열렸는데 혹시 여기 누가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1958_영화, 돈〉

담화 상황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는 〈표 10〉과 같다. '여보-'류는 대체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두루 실현되는데, 그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 등을 하는 상황이 고빈도로 나타난다.

〈표 10〉 담화 상황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진술	제안	문제 제기	걱정	방문 호출	질책	명령	종업원 호출	위협	총합
출현 빈도	52	28	22	19	15	13	10	9	8	5	1	182

4) 잠깐(만요)

〈표 11〉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이다. '잠깐(만요)'는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다. 1950년대부터 사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9]

〈표 11〉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2	10	1	9	15	21	18	76
낯선 사람	0	0	3	1	2	6	6	11	8	37
총합	0	0	5	11	3	15	21	32	26	113

'잠깐(만요)'의 화·청자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잠깐(만요)'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57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56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17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79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7회 나타난다.

〈표 12〉에서와 같이 '잠깐(만요)'는 화·청자가 여러 관계에서 두루 사용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양방향적인 사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화·청자가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사용되고,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에 고빈도로 사용되는데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도 모두 사용된다.

〈표 12〉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관계	이웃	연인	직장 상사-부하	가족·친척	친구	직장동료	선생-제자	낯선	총합
빈도	18	17	14	11	11	4	1	37	113

19) '잠깐(만요)'와 유사한 형태로 실현된 '잠시만(요)'라는 말도 2010년대 자료에서 2회 출현어로 실현되었다. '잠시만(요)'에서 '잠시'와 '잠깐(만요)'에서 '잠깐'은 동일한 의미를 지녔고 '잠시만(요)'는 출현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잠깐(만요)'에 포함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Gㄱ)은 인터뷰 진행 중에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필름을 교체하기 위하여 '잠깐(만요)'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중단하였다. (Gㄴ)은 화자가 문이 닫히려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를 타기 위해서 (Gㄷ)는 화자가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기 위해서 '잠깐(만요)'를 실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잠깐(만요)'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멈추게 하여 화자가 상대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하거나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G)의 예문에서와 같이 화자가 상대방을 다급하게 부르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G) ㄱ. 감독: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리포터: 네.
감독: 어-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이 도구화되는 현대 부부간의 성문화를 에- 심층적으로 파헤쳐본 것이죠.
카메라감독: 아 **잠깐만요** 테이프 좀 갈고 하겠습니다. 〈1988_영화, 개그〉
ㄴ. 재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회사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탑승) 〈2005_TV드라마, 연인〉
ㄷ. 성찬: 어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아 예 미안합니다. (버스 하차) 〈2006_TV드라마, 멋진〉

〈표 13〉은 담화 상황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이다. '잠깐(만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고빈도로 실현된다.

〈표 13〉 담화 상황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진술	제안	질문	문제 제기	명령	걱정	총합
출현 빈도	79	12	7	7	4	3	1	113

5) 저기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저기요'의 출현 빈도는 〈표 14〉와 같다. '저기요'는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저기요'는 자료에서 1990년대부터 호출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표 14〉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저기요'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0	0	0	0	15	10	25
낯선 사람	0	0	0	0	0	0	3	19	20	42
불특정 사람	0	0	0	0	0	0	0	0	3	3
총합	0	0	0	0	0	0	3	34	33	70

'저기요'가 실현될 때 화·청자의 관계는 '부하 직원-상사'(3회), '이웃'(19회), '직장 동료'(3회) / '낯선'(42회) / '불특정'(3회)이다. '저기요'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8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59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52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5회 나타난다.

'저기요'는 다른 호출어와 달리 화자와 청자가 아는 관계에서보다 처음 만난 낯선 관계에서 사용이 더 많다.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쓰임이 빈번하고, 힘의 위계에서는 화·청자가 서로 동등한 경우와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낮은 경우에 실현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높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다.

(Hㄱ)은 화자와 청자가 직장 동료 사이에서, (Hㄴ)은 낯선 사이에서 '저기요'가 실현된 사례이다. (Hㄷ)은 화자가 화장실에 갇힌 상황에서 '저기요'를 통해 불특정한 상대를 부르며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H) ㄱ. 수진: **저기요** 저랑 몰래 데이트 안 하실래요?
상원: 몰래 데이트요?
수진: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같은 직장 안에서 몰래 데이트하잖아요. 원래 제 소원이 학교 안에서 연애하는 거였거든요. 〈2007_TV드라마, 강남〉
ㄴ. 효진: **저기요** 뭣 좀 여쭤볼게요.
영진: 네? 무슨 일이시죠? 〈2014_TV드라마, 가족〉
ㄷ. 기태: 누구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갇혔거든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사람이 갇혔어요 사람이. **저기요**. 〈2014_TV드라마, 연애〉

담화 상황에 따른 '저기요'의 출현 빈도는 〈표 15〉와 같다. '저기요'는 여러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고빈도로 실현된다.

〈표 15〉 담화 상황에 따른 '저기요'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제안	문제 제기	걱정	진술	총합
출현 빈도	30	22	8	6	2	2	70

6) 어이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어이'의 출현 빈도는 〈표 16〉과 같다. '어이'는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낯선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어이'는 자료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자가 청자와 아는 관계에서 쓰임이 주로 나타난다.

〈표 16〉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어이'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1	14	6	15	5	8	49
낯선 사람	0	0	0	3	0	1	1	1	1	7
총합	0	0	0	4	14	7	16	6	9	56

'어이'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어이'는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30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26회가 실현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40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6회로 나타난다.

〈표 17〉과 같이, '어이'는 아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웃 어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웃 청년 등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힘의 위계가 동등한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쓰임이 관찰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두루 사용된다.

〈표 17〉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회)

관계	직장 상사-부하	이웃	친구	직장동료	가족·친척	선배-후배	총합
빈도	17	10	9	8	3	2	56

(Iㄱ)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Iㄴ)는 직장 동료가 상대방을 부를 때 '어이'가 실현된 상황이다. (Iㄷ)에서는 화자가 택시에 합승하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는 상황에서 '어이'가 사용되었다.

(I) ㄱ. 과장: **어이** 그 망치 쫌 갖구 와.
직원: 예? 부실려구요?
과장: 글쎄 갖구 와 좀. 〈1970_TV드라마, 반장1〉
ㄴ. 동료: **어이** 차강재. 너 그 소문이 사실이냐?
동료: 권 원장님 딸이랑 선봤다며?
강재: 누가 그런 소릴 해? 〈2014_TV드라마, 가족〉
ㄷ. 재구: **어이** 합승 합승. 오육구사 **어이** 오육구사 스톱 스톱 스톱.
여성: 자 어서 타세요. 〈1963_영화, 또순〉

담화 상황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는 〈표 18〉과 같다. '어이'는 대체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사용된다.

〈표 18〉 담화 상황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질문	요청	명령	문제 제기	질책	제안	진술	총합
출현 빈도	12	9	9	8	8	6	4	56

7) 실례합니다

〈표 19〉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이다. '실례합니다'는 자료에서 1950년대부터 쓰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쓰임이 유지되고 있다. '실례합니다'는 주로 화자가 낯선 사람을 호출할 때 사용되었다.

〈표 19〉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0	0	0	0	0	2	2
낯선 사람	0	0	4	2	2	2	0	2	4	16
불특정 사람	0	0	0	0	0	0	0	2	0	2
총합	0	0	4	2	2	2	0	4	6	20

‘실례합니다’는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18회 모두 실현된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0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8회 나타난다.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담화 상황에 따른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는 〈표 20〉과 같다.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외부에서 안에 있는 상대를 부르거나, 내부에서 상대를 보고 자신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하는 상황에서도 쓰임이 나타났다.

〈표 20〉 담화 상황에 따른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방문 호출 (비대면, 외부)	방문 호출 (대면, 내부)	총합
출현 빈도	2	4	2	12	20

(J ㄱ)에서는 화자가 용건이 있는 장소(집)을 방문하여 외부에서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실례합니다’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J ㄴ)에서는 화자가 용건이 있는 장소(가게)를 들어가 청자를 보며 ‘실례합니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왔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대화를 이어 나간다. (J ㄷ)은 화자가 낯선 사람에게 질문하기 위해 ‘실례합니다’를 사용한 상황이다.

(J) ㄱ. 남성: (실외에서) **실례합니다**.
경택: 누구십니까?
남성: 여기가 서건 씨 댁 맞습니까? 〈2006_TV드라마, 멋진〉
ㄴ. 찬우: (실내에서) **실례합니다**.
박주사: 나 말이우?
찬우: 예.
박주사: 왜 그러슈?
찬우: 영감님 혹시 관상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1961_영화, 서울〉
ㄷ. 동혁: 저 **실례합니다**. 저 광주에서 오신 김기룡 씨라고 계십니까?
남성: 저 채석장 뒤에 있는데 곧 나오실 겁니다. 〈1967_영화, 일월〉

8) '계세요'류

〈표 21〉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계세요'류의 출현 빈도이다. '계세요'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화자가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만 사용되었다. '계세요'류는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계세요', '계십니까', '계시오'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표 21〉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계세요'류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불특정 사람	1	2	3	3	2	1	1	0	0	13

'계세요'류는 화자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이곳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릴 때 사용된다. 그리고 화자가 특정 지역에 누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계세요'류를 호출어로 사용한다. '계세요'류가 호출어로 사용되는 담화 상황은 방문 호출 상황이다.

(Kㄱ)은 화자인 형사가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계십니까', '계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Kㄴ)는 항공대 학생들이 비행기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는 상황인데,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세요'를 사용하였다.

(K) ㄱ. 김형사: **계십니까? 계세요?**
여성: 누구요?
김형사: 아 저 여기 김남홍이라구 있죠?
여성: 아휴 내 아들이여. 서울 어디서 오셨슈? 아 선수촌에서 왔어요?
〈1970_TV드라마, 반장〉
ㄴ. 윤철: 우와!
상현: **계세요**?
민기: 조종실이 저쪽인가?
윤철: 야- 웬 계기가 이렇게 많아? 〈1993_TV드라마, 파일럿〉

9) ‘이리 오너라’

〈표 22〉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리 오너라’의 출현 빈도이다. ‘이리 오너라’는 1930년대에 화자가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만 실현되었다. ‘이리 오너라’가 호출어로 사용되는 담화 상황은 방문 호출 상황이다. (ㄴㄱ,ㄴ)에서와 같이 화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되었다.

〈표 22〉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리 오너라’의 출현 빈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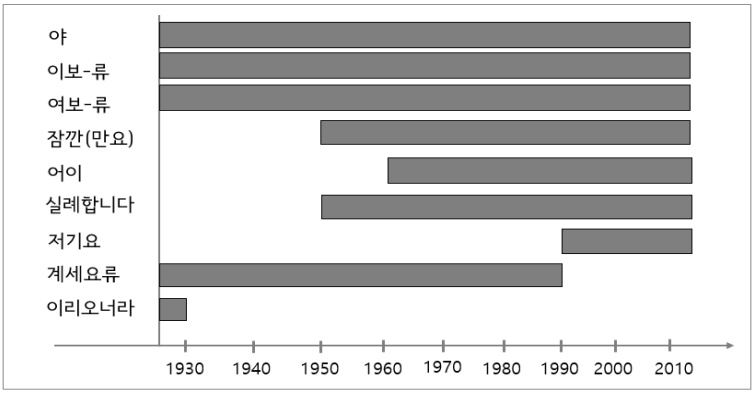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불특정 사람	5	0	0	0	0	0	0	0	0	5

(ㄴ) ㄱ. 순사: **이리 오너라**. 안에 계시오?
여성: 아 나리 어서 들어오세요. 〈1930_유성기연극〉
ㄴ. 월초: **이리 오너라**.
남성: 누구십니까? 들어오십시오.
아 서월초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월초: 저 다른 게 아니라 아씨께서. 〈1930_유성기연극〉

4.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 비교

이번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며 논의한다. 〈그림 1〉은 현대국어 호출어의 연도별 실현 양상을 정리한 내용이다.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현대국어 전 시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호출어는 ‘야’, ‘이보-’류, ‘여보-’류이다. 이 세 가지 호출어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현대국어 내에서 다른 호출어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편이다. 또한 전체 9개의 호출어 중에서 사용 빈도(누적 비율 77.6%)도 높다.



〈그림 1〉 현대국어 호출어의 연도별 실현 양상

이 중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사용이 줄어든다. 즉, '여보-'류는 대면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부르는 호출 기능이 1980년대를 전후로 축소되고, '여보'와 '여보세요'라는 형태로 부부 사이라는 특정 관계에서 부부 호칭어로 사용되거나 전화 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전화 인사말로 사용되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20]

다음으로 '잠깐(만요)', '어이', '실례합니다'는 1950, 1960년대부터 사용이 나타나고 '저기요'는 1990년대부터 실현되어 모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저기요'는 호출어 중에 가장 최근에 와서야 사용을 시작한 말인데, 현재는 낯선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사용된다.

'계세요'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리 오너라'는 1930년대에만 실현된 호출어이다. 이 두 호출어는 모두 화자가 주로 남의 집, 사무실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다. '이리 오너라'의 정확한 사용 시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분 제도가 있었던 오래전부터 주로 양반 신분인 방문객이 대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여 현대국어의 초기까지 그 쓰임이 이어진다. '계세요'류는 2000년대 이후 휴대폰, 인터폰 등의 통신 매체 및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20) 송인성, 앞의 글, 2016, 228면.

그 쓰임이 이전만큼은 빈번하지 않다. 최근에는 주로 중년, 노년층이 식당, 가게 등의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장소에 직원이나 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현대국어 호출어의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에 따른 실현 양상

호출어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
야	아는 사람**, 낯선 사람	○**, ×	동등**, 높음
어이	아는 사람**, 낯선 사람	○, ×	높음**, 동등
잠깐(만요)	아는 사람*, 낯선 사람	○, ×	동등**, 낮음, 높음
이보-류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	×*, ○	동등*, 높음, 낮음
여보-류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	○, ×	동등*, 높음, 낮음
실례합니다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	×	동등, 낮음
저기요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불특정 사람	×**, ○	동등**, 낮음
계세요류	불특정 사람	판단 불가	판단 불가
이리 오너라	불특정 사람	판단 불가	판단 불가

** 70% 이상, * 60% 이상 실현, 힘의 위계에서 '높음'과 '낮음'은 화자 기준, '동등'은 화·청자 기준

〈표 23〉은 현대국어 호출어의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에 따른 실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호출 대상이 주로 아는 사람일 때 사용되는 호출어는 '야', '어이', '잠깐(만요)', '이보-'류이다.

'야'는 사전에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로 정의된 것처럼, 화·청자가 친한 사이에서 힘의 위계가 동등하거나 혹은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을 때 사용된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나 부부 및 연인 간에 '야'를 사용하는 경우 청자가 기분의 상함, 언짢음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화·청자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야'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거의 '야'가 사용되지 않는다.

'어이', '잠깐(만요)'는 호출 대상이 주로 아는 사람이지만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말이다. 이 가운데 '어이'는 대부분의 호출어가 화·청자가 동등한 힘을 지닌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리, 화자가 청자보다 주로 힘이 높은 경우에 실현된다.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낮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잠깐(만요)'는 힘의 위계가 화·청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관계와 낮은 관계에서도 모두 사용된다.

‘이보-’류는 호출 대상이 주로 아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다른 호출어들과 달리 화·청자가 친한 사이에서보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호출 대상이 낯선 사람일 때 주로 사용되는 호출어는 ‘저기요’, ‘실례합니다’이다. 이 두 호출어는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으며 힘의 위계도 화·청자가 동등하거나 화자가 청자가 낮은 경우에 사용되고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계세요’류와 ‘이리 오너라’는 호출 대상이 불특정 사람일 때 사용되는 호출어이다. 이 호출어들은 화자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 안에 있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된다.

〈표 24〉 현대국어 호출어의 주된 담화 상황의 실현 양상

호출어	주된 담화 상황
야	문제 제기, 질책, 명령
이보-류	문제 제기
여보-류	요청, 질문, … 종업원 호출
저기요	요청, 질문
잠깐(만요)	요청
어이	질문, 요청
실례합니다	방문 호출(실내 대면, 실외 비대면)
계세요류	방문 호출(실외 비대면)
이리 오너라	방문 호출(실외 비대면)

〈표 24〉는 호출어가 실현되는 주된 담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호출어가 실현되는 주된 담화 상황은 문제 제기 등을 하는 상황, 요청 및 질문 등을 하는 상황, 방문 호출을 하는 상황으로 구분된다.[21]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 질책 등을 하는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출어는 ‘야’, ‘이보-’류이다. 화자는 청자의 말과 행동 및 발화 상황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문제 제기나 질책 등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호출어를 주로 사용한다.

21) ‘어이’는 여러 담화 상황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실현되었지만 질문, 요청, 제안을 하는 상황(27회)이 문제 제기, 질책을 하는 상황(16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주된 담화 상황을 요청 및 질문 부류로 제시하였다.

화자가 청자에게 주로 요청, 질문 등의 담화를 전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출어는 '여보-'류, '저기요', '잠깐(만요)'이다. '여보-'류와 '저기요'는 주로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그 이후로 호출어로 쓰임이 약화된다. '여보-'류가 면대면 상황에서 사용이 감소하자 이 역할을 대신하여 1980년대 이후 사용되는 호출어가 '저기요'이다. '저기요'는 근래에 들어 화자가 상대에게 요청, 질문, 제안 등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다.[22)]

'여보-'류는 종업원 호출이라는 담화 상황에서도 쓰인다. 분석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화자가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여보-'류가 대면 상황에서의 호출어로 쓰임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 '여기요'의 사용을 통해 '여보-'류의 쓰임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리 오너라'는 오래전에 방문 호출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인데, 현대국어 초기 이후에 '이리 오너라'의 쓰임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하여 '계세요'류,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계세요'류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외부에서 상대를 부를 때 사용되는 반면,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내부에서 직접 상대를 보고 부를 때 사용된다. 최근 들어 통신 기기의 발달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예고 없이 방문 호출을 하는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방문 호출 상황에서의 '계세요'류, '실례합니다' 등과 같은 말의 사용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에서 실현되는 호출어의 종류를 살피고, 각 호출어의 시대별 사용 양상을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22) 최근 '저기요'가 요청, 질문 등의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보-'류가 현재로 오면서 요청, 제안 등의 상황에서 쓰임이 감소하고 문제 제기, 경고의 사용이 강화된 것과도 유관하다. 송인성, 앞의 글, 2020, 552-556면.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로 나타났다.

'야', '이보-'류,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는 호출어이다. '야'와 '이보-'류는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는데, '야'는 화·청자가 친하고 힘의 위계가 동등한 관계에게 사용되고, '이보-'류는 대부분 '이봐', '이봐요'의 형태로 화·청자가 친하지 않고 힘의 위계가 다양한 관계에서 사용된다. '여보-'류는 주로 '여보', '여보게', '여보세요'의 형태로 쓰이며 요청을 하는 담화 상황에 실현되는데 1980년대 이후 쓰임이 약화된다.

'잠깐(만요)'는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제지하고 자신의 발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기요'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이 나타나는데 화자가 낯선 상대에게 주로 요청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이'는 주로 화·청자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쓰이고, 청자보다 화자의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누군가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계세요'류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외부에서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된다.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내부에서 상대를 직접 보고 부를 때 사용된다. '이리 오너라'는 예전에 남의 대문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인데 현대국어 초기에만 그 쓰임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호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호출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국어 부름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록

제목	유형	약어	제목	유형	약어
김복진 동화 구연(1934)	동화구연	구연	이상한 나라의 폴(1976)	만화	이상
조선어 독본(1935)	음성교재	독본	인간 사표를 써라(1971)	영화	인간
유성기연극 음반(1930년대)	유성기음반	연극	별들의 고향(1974)	영화	고향
유성기영화 음반(1930년대)	유성기음반	영화	바보들의 행진(1975)	영화	행진
미몽(1936)	영화	미몽	영자의 전성시대(1975)	영화	영자
심청전(1937)	영화	심청	족보(1978)	영화	족보
군용열차(1938)	영화	군용	사랑이 꽃피는 나무(1987)	TV드라마	사랑
어화(1939)	영화	어화	수사반장(1980)	TV드라마	반장2
수업료(1940)	영화	수업	전원일기(1980)	TV드라마	전원
반도의 봄(1941)	영화	반도	초원에 뜨는 별(1985)	TV드라마	초원
지원병(1941)	영화	지원	달려라 하니(1988)	만화	하니1
집 없는 천사(1941)	영화	천사	천방지축 하니(1989)	만화	하니2
자유만세(1946)	영화	만세	아기 공룡 둘리(1987)	만화	둘리
독립전야(1948)	영화	독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영화	난장
마음의 고향(1949)	영화	마음	깊고 푸른 밤(1985)	영화	깊밤
운명의 손 (1954)	영화	운명	겨울 나그네(1986)	영화	겨울
미망인(1955)	영화	미망	개그맨(1988)	영화	개그
서울의 휴일(1956)	영화	서울	칠수와 만수(1988)	영화	칠수
자유부인(1956)	영화	부인	마지막 승부 (1994)	TV드라마	승부
그대와 영원히(1958)	영화	그대	바람의 아들(1995)	TV드라마	바람
돈(1958)	영화	돈	창공(1995)	TV드라마	창공
자유결혼(1958)	영화	자유	파일럿(1993)	TV드라마	파일
여사장(1959)	영화	사장	영심이(1990)	만화	영심
청춘쌍곡선(1956)	영화	청춘	아래층 여자와 윗층 남자(1992)	영화	아래
자매의 화원(1959)	영화	자매	결혼 이야기(1992)	영화	결혼
태평양 전쟁(1967)	라디오드라마	전쟁	투캅스(1993)	영화	투캅
향토무대(1968)	라디오드라마	향토	접속(1997)	영화	접속
여명80년(1963)	라디오드라마	여명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영화	우물
우주의왕자 황금철인(1968)	만화	우주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TV드라마	미사
서울의 지붕 밑(1961)	영화	지붕	프라하의 연인(2005)	TV드라마	연인
또순이(1963)	영화	또순	돌아와요 순애씨(2006)	TV드라마	순애
검은머리(1964)	영화	머리	어느 멋진 날(2006)	TV드라마	멋진
맨발의 청춘(1964)	영화	맨발	강남엄마 따라잡기(2007)	TV드라마	강남
일월(1967)	영화	일월	보스를 지켜라(2011)	TV드라마	보스
여로(1972)	TV드라마	여로	연애 말고 결혼(2014)	TV드라마	연애
수사반장(1970년대)	TV드라마	반장1	가족끼리 왜이래(2014)	TV드라마	가족
미래소년 코난(1978)	만화	코난	킬미힐미(2015)	TV드라마	힐미
빨강머리 앤(1979/1985)	만화	빨강	-		

▮ 참고문헌

강소산・전은주,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363-389면.

강우원, 「경남 방언의 부름말 실현 양상과 문화적 특성」, 『언어과학』 15-2, 한국언어과학회, 2008, 1-19면.

구현정,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 의미학』 51, 한국어의미학회, 2016, 85-110면.

김태엽, 「국어 부름말의 문법」,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107-127면.

박정운, 「한국어 호칭 체계」,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507-527면.

손춘섭,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2010, 95-129면.

송수영・김양진, 「한국어에서의 호출어 개념 연구」, 『국어학』 104, 국어학회, 2022, 87-117면.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 56,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_____,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539-561면.

오재혁 외, 「20세기 초 구어 연구를 위한 음성 자료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225-258면.

왕한석 외,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2005.

이선화,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윤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87-306면.

전혜영,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연구와 교육』 1,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121-135면.

조용준, 「한국어 호칭 표현의 범위와 그 특성」, 『한말연구』 50, 한말연구학회, 2018, 169-201면.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2017, 227-254면.

Eggin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ontinuum, 2004.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황적륜 외 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Leech, G., "The distribution and function of vocatives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conversation", In H. Hasselgard & S. Oksefjell (Eds.), *Out of Coopora (Studies in honour of Stig Johansson),* Amsterdam: Rodopi, 107-118, 1999.

【Abstract】

Types and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n summonses

Song, In-Se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mmonses in modern Korea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mm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peaker and listener's relationship, level of intimacy, power hierarchy, and discourse situation.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summonses such as 'ya', 'ibo-', 'yeobo-', 'jamkkan (manyo)', 'jeogiyo', 'eoi', 'gyeseyo', 'sillyehamnida', and 'iri oneora' were identified in modern Korean. 'ya', 'ibo-', and 'yeobo-' have been consistently used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Korean language. 'ya' and 'ibo-' are mainly used in protest discourse situations, while 'yeobo-' is mainly used to make a request and its usage has decreased since the 1980s. 'jamkkan(manyo)' is used by the speaker to restrain the other person's actions or words and proceed with their own utterance. 'jeogiyo' has been used since the 1990s, and is mainly used to make a request to a stranger. 'eoi' is primarily used when the speaker has a higher power hierarchy than the listener in a relationship. 'gyeseyo', 'sillyehamnida', and 'iri oneora' are words used in discourse situations when the speaker visits a specific place and calls someone who is there.

Keywords: summonses, forms of address, ya, ibo-, yeobo-, jamkkan(manyo), jeogiyo, eoi, gyeseyo, sillyehamnida, iri oneora.

접수일: 2023.03.25.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Kyedang General Education, Sangmyung Univ.